

광주비엔날레 작품설치 본격 시작됐다



나무상자를 개봉하자 스티로폼으로 칸막이 처리가 돼 있고, 종이테이프와 비닐로 여러번 포장을 마친 액자들이 칸칸이 꽂혀 있다. 푸른색 바탕에 씨앗으로 형상화 된 추상적 이미지의 작품들이 공개되자 컨저베이터(보존처리전문가) 황인숙씨가 상자 내부에서부터 작품 포장상태, 작품에 이르기까지 컨디션은 사진으로 찍으며 꼼꼼히 체크한다.

2018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

반입·설치 동시진행...개막 한달 앞 전시준비 순조 개막식엔 이이남 신작 미디어 프로젝션 퍼포먼스

(Imagined Borders)' 개막을 한달 앞두고 8일 광주비엔날레에서 전시작품 첫 반입 행사가 열렸다.

이날 처음 반입된 작품은 방글라데시 작가 무넴 와시프의 '씨앗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로 30여 개 프린트로 구성된 평면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리티아 가위원의 '경계라는 환영을 마주하며' 섹션에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비엔날레에 전시될 작품 운송은 이달 중순부터 시작됐으며, 전시관 공간 공사를 비롯해 작품 반입 및 설치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는 이날 "비엔날레에서 만날 북한미술품들이 최근 국내에 반입됐다"고 말했다.

국내에 들어온 북한미술품은 모두 22점이며 현재 서울에서 표구작업을 하고 있다. 작품 보관을 위한 사전 작업과 전시공간인 스튜디오 시설공사 등을 마무리하면 다음 주께 광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출품작가는 북한 최고작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최창호·공훈예술가 김인석 등 32명으로 여러 명이 함께 작품을 완성하는 대형 집체화 6점이 포함됐다. 김 대표는 "작품들이 안전하게 모두

들어왔으며 작품 보관과 전시를 위한 사전 작업을 꼼꼼히 완료해 비엔날레에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18광주비엔날레는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66일 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지에서 열린다.

총 43개국 165명의 참여로 동시대 세계에 대한 이슈를 광주의 역사적 장소와 지역의 문화 현장에서 시각적으로 펼쳐 낼 계획이다.

전시는 11명 큐레이터의 7개 전시인 주제전과 광주의 역사성을 반영한 장소 특정적 신작 프로젝트 'GB커미션', 해외 유수 미술기관 참여의 위성프로젝트인 '파빌리온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개막식은 9월 6일 오후 7시 30분부터 광주비엔날레 광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개막식은 특별프로젝트로 진행되



8일 오전 광주비엔날레 2전시실에서 열린 첫 반입 작품 공개행사에서 관계자들이 방글라데시 작가 무넴 와시프의 '씨앗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작품 공개준비를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면서 기존 공연 중심의 개막식 연출을 지양하고,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의 신작 미디어 프로젝션 퍼포먼스로 기획됐다. 인간의 상상으로 형성된 경계를 넘는

예술의 역할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양 벽면을 미디어 파사드로 활용해 음악과 퍼포먼스, 미디어아트의 융·복합 형식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이연수 기자



김상욱 교수



정재찬 교수



김동철 심리학자



유창중 변호사

시·역사·과학·심리학으로 만나는 인문강좌

ACC 하반기 강좌 풍성...오는 29일 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화원(ACI)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는 인문강좌가 오는 29일을 시작으로 하반기 일정을 시작한다. 하반기 첫 강좌는 정재찬 교수(한양대)의 '그대를 듣는다'로 시작한다. 29일 정 교수는 무더위에 지친 심신을 문학적 감성으로 위로할 예정이다. TV 프로그램 'tvN 어쩌다 어른', 'JTBC 김제동의 특투유' 출연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정 교수는 이번 강연을 통해 사람들의 기억과 가

속에서 멀어진 '불후의 명사'들에 생명을 불어넣음으로써 시를 통한 공감과 위로를 전달한다.

9월 인문강좌(9월 19일)는 '기와 검사'라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유창중 변호사가 '기와 검사가 본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를 주제로 강연한다.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유급 외당박물관 공동관장인 유창중 변호사는 지난 40년간 외당 수집을 하면서 '기와'를 연구해왔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한·중·일 세 나라의 문화적 특징과 상호 문화교류에 대해 들려줄 예정이다. 10월 강좌(10월 31일)는 김동철 심리학자의 '감성 소통 그리고 심리 운영'을 주제로 진행된다. 심리치료 전문가인 김동철 박사는 공간지각능력 전문가이자 복합기능 분야의 권위자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정신분석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현대인들의 심리적 안정에 따른 '심리면역성 길러내기'와 개인과 집단에서 발생하는 '소통 문제', '공감문제', 개인의 '심리 혹은 정신적 문제'를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예방하는 것을 중점으로 전달

한다.

11월 강좌(11월 28일)는 김상욱 교수의 '뉴턴의 아틀리에'로 대미를 장식한다. 철학하는 과학자로 대중에게 알려진 김상욱 교수는 물리학자의 눈으로 우주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보고 우주에 숨겨놓은 아름다움을 이야기 한다. 강의에서는 예술, 그리고 우주에 대한 에세이를 들려 줄 예정이다.

하반기 인문강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 신청은 ACC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899-5566. /이연수 기자

명작·독백연기 '막무가내 상상학교'

극단 사람사이, 11일 퍼블릭 프로그램 성과 발표

빛고을시민문화관 상주단체 '극단 사람사이' (대표 송정우)가 명작 공연과 독백연기로 구성된 '막무가내 상상학교' 공연을 선보인다.

막무가내 상상학교는 극단 사람사이가 진행한 퍼블릭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 참가자 35명을 모집했다. 송정우 대표를 비롯해 극단 사람사이의 수석단원들이 강사로 나서 주 1회 이상 연극·연기·노래·연극사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수업을 해왔다.

이번 공연은 그간의 수업 성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로 1부에서는 '헤더웨이집의 유령' 공연을, 2부에서는 1인 독백연기를 선보이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계기를 마련해본다. 공연은 뮤지컬 형

식으로 진행돼 관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송정우 대표는 "35명의 참가자에는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포함돼 있다"며 "실제 공연에서 배우와 스태프의 역할을 해보며 본인의 꿈을 구체화 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극단 사람사이는 이번 퍼블릭 프로그램 외에도 오는 9월 21-22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리어왕' (셰익스피어 작·송정우 연출)을 공연할 예정이다.

'막무가내 상상학교'는 오는 11일 오후 4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입장료 무료.

문의 010-2054-4280. /이보람 기자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6834-7400